

연중 제 29 주일

제1독서 : 이사 45, 1-6  
제2독서 : I 데살 1, 1-5  
복 음 : 마태 22, 15-21

이 주일의 화답송

영광과 힘을  
주님께  
들려드려라.

# 숲 정 이

## 강론

### 하느님의 것은 하느님께

김 의 철 신부/원평 성당

예수께서 본격적으로 활약하던 당시 팔레스티나에 살던 이스라엘 백성은 로마 제국의 지배하에서 주눅들어 사는 신세였다. 예수께서는 이러한 난세에 메시아로서의 소명의식에 가득차 기쁠 곳 없는 민중들에게 하느님 아버지에 대한 믿음과 희망을 고취시키며, 기쁜 소식을 전파해 나가셨다. 특히, 예수님은 유다이즘의 근본적인 개혁을 요구하고 선조들의 신앙을 진실하고도 절정의 형태로 구현시키고자 했으나, 유다 지도자들은 부정적 태도를 취하고 충돌을 일삼았다.

오늘 복음에서도 예수님의 말씀을 트집잡고 올가미를 씌우기 위해 민감한 세금 문제를 들고 나와 예수님을 곤경에 빠뜨리고자 한다. 카이사르(=체사르, 시저)에게 세금을 내지 않아도 좋다고 말씀하시면 로마의 권위를 부정하는 셈이고, 세금을 내라하면 이스라엘을 배신하는 꼴이었다. 예수께서는 "카이사르의 것은 카이사르에게 돌리고, 하느님의 것은 하느님께 돌려라."고 답변하신다. 여기서 카이사르의 것은 국가 즉, 정치 권력을, 하느님의 것은 교회 혹은 종교를 가리키는 말이라 생각된다. 예수님의 이 말씀은 종교와 정치의 영역을 구분하여 혼동을 피하라는 말씀으로 해석되어 왔다. 불행히도 이 원칙은 오랜 역사 동안 시행착오를 일으켜 충돌해 왔다. 인류 역사를 이끌어왔던 두 축 종교와 정치의 충돌은 서로가 상대방을 지배하고 종속시키려 했기 때문에 빚어졌다. 종교가 주도권을 쥐었을 때 정치측에서 카이사르의 것은 카이사르에게 돌리라고 부르짖었고, 반대로 정치의 세력이 막강하여 전체적으로 치달을 때 종교는 하느님의 것은 하느님께 돌리라고 요구했다. 서로가 상대방을 종속시키려 할 때 파탄에 빠진다는 뼈아픈 교훈을 얻게 되었고 이러한 논쟁을 계기로 민주 정치 이론이 발달하게 되었다. 양자가 서로의 독립성과 고유성을 인정하여 적극적 협력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최선이지만 정치가 그릇된 길을 갈 때 종교는 시정을 요구하고 현실에 참여해야 할 것이다. 정치 권력도 종교의 도덕적 판단과 사회적 책임을 인정하고 받아들여야 할 것이다. 그러나 그릇된 정치가 계속되어 민중이 고통을 당할 때, 교회는 이를 방관하기 보다는 십자가를 짊어지는 용기가 필요하다.

## 소리

### 고통의 신비

산모가 한 아이를 낳기까지는 무려 10달동안 말할 수 없는 고통을 겪는다. 부모의 은혜를 이야기한 '부모은중경'이란 불경에는 아이를 낳을 때쯤의 부모의 심정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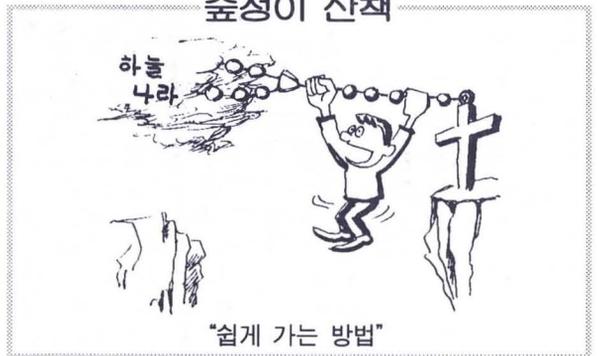
"아이를 배어 나올 때가 되면, 아침마다 병이 든 것처럼 몸이 무겁고, 날마다 정신이 혼미하고 두려움이 그지없다. 눈물이 가슴에 가득하고, 서러운 마음이 들면서 죽을까 두렵다."

아이를 낳을 때의 고통을 인간적으로만 계산한다면 낳고 싶은 사람이 없을 것이다. 그러나 아이를 낳고 키우고 하는 그 신비로움을 아는 사람은 분만의 고통을 알면서도 또 아이를 낳을 것이 분명하다.

묵주기도 중 고통의 신비를 묵상하면서 예수님이 피땀 흘리시면서 십자가에 매달리시게 되는 과정을 되뇌일 때 섬뜩한 느낌이 든다. 그런데 십자가에 매달리셔서 받게 된 그 참을 수 없었던 고통과 고통의 끝인 죽음이 신비롭게도 우리를 구원하는 신비가 된 것이다.

복잡한 사회 속에 살면서 우리가 갖게 되는, 갈등과 온갖 편견과 증오심, 이기심에서 오는 인간적인 고통은 고통이라고 말하기 어렵다. 인간적인 고통을 넘어서 일반적인 이론이나 인식을 초월해야만 신비로운 세계를 경험하게 될 것이다. 고통을 겪은 사람만이 알 수 있는 신비로움, 우리도 그러한 고통의 신비를 조금이라도 맛볼 수 있도록 맡은 일에 최선을 다하면서 살아가자. [태]

### 숲정이 산책





1999년 성부의 해 - 아버지의 집을 향해 가는 해

### “희년, 나의 신원을 찾아서...”

“이 해는 너희가 희년으로 지킬 해이다. 저마다 제 소유지를 찾아 자기 지파에게로 돌아가야 한다.”(레위 25, 10).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희년이 되면 지파를 떠났던 사람들이 모두 자기 지파로 다시 돌아가도록 하였다. 그런데 “제 소유지를 찾아 자기 지파로 돌아가야 한다.”는 이 말은 지역적이고 외적인 귀향을 뛰어넘는, 인간 본질로의 귀향이라는 더욱 심오한 차원의 의미를 담고 있다. 다시 말해, 인간은 참으로 누구이고, 어디에서 왔으며 어디로 가고 있는지, 그리고 어떻게 그 길을 가야 하는지에 대한 근본적인 답을 담고 있다. 그리고 “돌아가라.”는 이 명령은 2000년 대희년을 맞이하고 있는 이 시대의 우리에게도 그대로 적용된다.

“제 소유지를 찾아 자기 지파로 돌아가야 한다...” 그렇다면 이 말은 과연 오늘의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고 있는가. 교황성하께서는 「제삼천 년기」에서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마치 하느님께서 존재하시지 않는 양 살아가고”있다고 아픈 마음으로 말씀하고 계신다. 대부분의 현대인들이 - 하느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까지도 - 하느님께서 존재하지 않으시는 것처럼, 그분과는 무관하게 매일의 삶을 살아가고 있다. 이렇게 함으로써 인간들은 잃어버려서는 안될 가장 소중한 것을 잃어가고 있으니, 곧 하느님의 모상, 하느님의 자녀, 하느님의 “너”라는 자신의 고귀한 신원을 스스로 상실해 가고 있으며, 동시에 자신의 존엄성을 타락시켜 허무감과 의미상실, 쾌락주의 등 혼돈속에서 살아가게 되었다. 그래서 사도 바오

로는 로마서에서 이렇게 개탄한다. “인간은 하느님을 알면서도 하느님으로 받들어 섬기거나 감사하기는 커녕 오히려 생각이 허황해져서 그들의 어리석은 마음이 어둠으로 가득 차게 되었습니다.”(1, 21) “모든 사람이 죄를 지어 하느님이 주셨던 본래의 영광스러운 모습을 잃어버렸습니다.”(3, 23)

하느님을 잊음으로 해서 인간은 “하느님의 모상”이며 하느님에게서 난 존재라는 신원, 그 정체성을 잃어버렸고, 그러기에 어디로 가야 하는지 인생의 목적도 잃어버렸으며, 동시에 어떻게 이 인생을 살아가야 하는지 그 삶의 방식도 역시 잃어버리게 된 것이다. 곧, 진정한 자신의 소유지, 자신의 지파를 떠나 방황과 어둠의 삶을 살게 된 것이다. 그러나, 아무리 그렇다 하더라도 목적도 없이 의미도 없이 허망하게 한평생을 살아가기에 인간은 너무도 소중한, 너무도 존엄한 존재들이다.

그러므로 대희년이 눈앞에 다가온 이 때, 우리는 무엇보다 먼저 “나는 참으로 누구이며, 어디서 와서 어디로, 어떻게 가고 있는가?”하고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져야 한다. 그리고 우리가 매일 아침 바치는 “하느님, 저를 사랑으로 내시고 저에게 영혼과 육신을 주시어 다만 주님을 위하고 사람을 도우라 하셨습니다이다.”라는 기도가 “내가 돌아가야 할 지파, 내 소유지”와 무슨 관계가 있는지를 살펴보아야 한다.

“당신은 어느 지파, 어느 가문에 속합니까? 나에게 말해 주시오.”(토비트 5, 11)

기쁘고 은총의 대축제 2000년 대희년까지 69일 남았습니다.

### 인터넷 접속요금이 할인됩니다.

교구를 통해 Konet에 가입하시면 단체가입 혜택이 주어집니다.

기존 사용자도 교구단체 가입자가 될 수 있습니다.

인터넷 월정요금 : 3,310원 접수 : 교구 전산실(0652) 285-0041이나

한국통신 전주 전화국 (0652) 282-7299, 287-0200 FAX 231-0115(담당 이종성)

<p><b>전 주 대 향 외 과</b> <b>(구. 학문외과)</b> 대장 항문 전문병원 (치질, 치루, 변비) 전문의 소 우 성(스테파노) 효자동 서도프라자 입구 ☎ (0652) 227-0377</p>	<p><b>임실 동총하초 연구소</b> 항종양 면역증강 허약체질 개선, 노화방지, 만성피로 암환자, 천식, 결핵, 황달, 당뇨, 고혈압 소장 김 형 권(필립보) ☎ 임실 (0673) 644-7334-5 전주 (0652)213-4131-2</p>	<p><b>백 마 익 스프 레 스</b> · 포장이사 · 일반이사 · 용달사업부 · 고층사다리보유 · 24시간 인부대기 · 반포장 · 1톤, 2.5톤, 3톤 차량보유 편리하고 안전한 이사 백마가 책임지겠습니다. 이 정 환(마 르 코) 인 정 미(프란치스카) ☎ (0652) 253-2452 H·P 019-678-2486 무료전화 080-050-2482</p>	<p><b>LG 냉 난 방</b> 에어컨, 식당용 냉장고 천정형 에어컨 백제로 빙상경기장 건너편 원 승 연(도밍고) ☎ (0652) 241-2000</p>
---	--	--	--



# ■ 김·정·고·부 지구 본당소식 ■

**고 창** 주임신부 563-2552 사무실 564-2044 주임신부 김기수  
유치원 564-3529 수녀원 564-6585 사목회장 정길진

- ◎ 오늘은 연중 제27주일 군인주일 :
  - ① 가정과 일터에서 환경보전을 위한 실천사항 정하고 실행하기
  - ② 북한 형제들을 위해 기도과 단식, 회생하기
- 1. 오늘은 교무금, 사제양성 후원회비 봉헌주일입니다
- 2. 모임 : ① 여성분과회 - 오늘 공식미사 후
  - ② 애영회 - 19일(화) 후 8시 ③ 자모회 - 21일(목) 후 2시
  - ④ M.E - 21일(목) 후 9시 ⑤ 사목회 - 22일(금) 후 8시
- 3. 제4차 성체 현양 대회 : 20일(수) 치명자산, 신청 - 사무실
- 4. 전교주일 : 다음주 2차현금 있음
- 5. 예비신자 교리 : ① 신부님반 - 매주 화요일 후 8시
  - ② 수녀님반 - 매주 일 전 9시
- 6. 금주 전례 : 이종태, 김영숙

□ 지난주 봉헌금 : 754,900원 □ 교무금 : 394,000원

**부 안** 주임신부 584-1331 사무실 584-1333 주임신부 이완재  
유치원 584-1004 수녀원 584-1332 사목회장 조건규  
F A X 581-1334

- 1. 오늘은 성소후원회비와 빈첸시오비대 납부주일입니다 :  
회원님들께서는 많은 관심 바랍니다
- 2. 부활 영세반 예비신자 모집 : 매주 목요일 저녁미사 후  
\* 사무실에 신청
- 3. 본당신부님 영명축일행사 : 24일(주일) 중심미사 후, 중식제공  
\* 축하식은 중심미사중에 있음
- 4. 성체현양대회 : 20일(목) 막내슈퍼앞에서 8시 30분출발  
\* 참가대상자 - 레지오 단원
- 5. 공소 미사 : 금주 - 덕림 전 6시
- 6. 23일(토) 후 3시 어린이 미사는 없습니다
- 7. 본당미사 참석공소 : 금주 - 둔지, 차주 - 전제공소
- 8. 금주 청소 : 3구역
- 지난주 봉헌금 : 955,100원 □ 교무금 : 1,060,000원
- 성체헌금 : 30,600원

**수 류** 주임신부 544-5653 사무실 543-0177 주임신부 최종수  
F A X 543-0177 수녀원 543-2651 사목회장 김한규

- 1. 금주 전례 : 해설 - 김정애, 독서 - 박철석, 정준환
- 2. 차주 전례 : 해설 - 박철석, 독서 - 반영복, 정재덕
- 3. 견진 교리 : 26일(화)~30일(토) 후 8시부터  
\* 견진 대상자는 빠짐없이 참석합니다
- 4. 제4차 성체현양대회 : 20일(수) 전 10시, 치명자산
- 5. 전신자 성지순례 : 11월 3일(수), 소록도 참가자 1만원  
\* 사무실에 미리 신청바랍니다
- 6. 신봉성당 바자회 티켓판매 : 30일(토)~31일(주일)  
1매당 - 5천원
- 7. 성당 청소 : 최인의 의탁 Pr.

□ 지난주 봉헌금 : 253,050원 □ 교무금 : 420,000원

**시 기 동** 주임신부 532-3282 사무실 535-2169 주임신부 양석현  
유치원 532-5777 수녀원 533-9719 사목회장 박성빈  
F A X 535-2169

- ◎ 전신자 성지순례에 협조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 1. 10월은 목주기도성월입니다. 목주기도성월동안 매일 후 7시에  
성모상 앞에서 목주기도 있습니다
- 2. 울트라야 : 17일(주일) 공식미사 후, 강당
- 3. 새로운 반장 임명식 : 17일(주일)
- 4. 금주 전례 : (토) 해설 - 전영자, (주일) 해설 - 강희자  
독서 - 장기호, 엄정애
- 5. 차주 전례 : (토) 해설 - 이종승, (주일) 해설 - 김봉선  
독서 - 이재진, 조순정
- 6. 금주 모임 : ① 요셉회, 매괴회 - 17일(주일) ② 노래회 - 20일(수)  
③ 꼬시요우 - 토
- 7. 차주 모임 : 프란치스코 재속상회, 아브라함회 - 24일(주일)
- 8. 금주 청소 : 월 - 황금궁전, 승리의 여왕, 토 - 매괴의 모후
- 지난주 봉헌금 : 357,500원

**원 평** 주임신부 543-0880 사무실 543-0881 주임신부 김의철  
유치원 543-4236 수녀원 545-2843 사목회장 정남기

- ◎ 잠시 생각해 봅시다. 신앙인으로서 해야 할 기본적인 의무를 우리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기도와 봉사의 생활 교무금과 봉헌금등 해야할 일들을 인식하거나 소홀히 하고 있지는 않은지?
- 1. 오늘은 연중 제29주일 2. 감사 : 본당 신부님 영명축일에 수고와  
기도 참여해 주신 모든 교우 3. 교구성체현양대회 : 20일(수)  
\* 많은 참여 바람, 교통과 시간은 주보참조
- 4. 성전지붕 보수공사 신림하여 주신 분들 재정상태가 어려워니  
협조하시어 완납 부탁드립니다
- 5. 성당 청소 : 봉남구역 6. 금주 모임 : 모니카회
- 7. 금주 전례 : 해설 - 송영환, 독서 - 박금택, 강단규  
봉헌 - 서만식 가정
- 10. 차주 전례 : 해설 - 최석기, 독서 - 이만춘, 안금순  
봉헌 - 김남기 가정
- 지난주 봉헌금 : 227,400원

**신태인** 주임신부 571-8202 사무실 571-8201 주임신부 전종복  
수녀원 571-8203 사목회장 오영화

- ◎ 견진 교리 : 15일(금)~23일(토) 후 8시
- ◎ 성령세미나 : 18일(월)~23일(토) 후 8시
- ◎ 성당 대정소가 미사후에 있습니다
- 1. 금주 미사 참석 : 미산, 안희, 화봉, 진홍
- 2. 차주 미사 참석 : 옥단, 태인
- 3. 견진성사 : 24일(주일)에 있습니다
- 4. 컴퓨터 구입에 도움을 주신 분 : 영신회, 오영화, 김인순, 김안나  
신비로운 장미 \* 모든 분께 감사드립니다
- 5. 24일은 전교주일 2차현금이 있습니다
- 6. 금주 전례 : 해설 - 송영준, 독서 - 김진권, 김명자  
봉헌 - 김성수, 김봉래
- 7. 차주 전례 : 해설 - 김정길, 독서 - 이영섭, 배영옥  
봉헌 - 김영배, 박영래
- 지난주 봉헌금 : 410,400원 □ 교무금 : 490,000원

**신 풍** 주임신부 544-2272 사무실 544-2271 주임신부 박종출  
F A X 544-2271 수녀원 544-2273 사목회장 김태술

- 1. 금주 모임 : 울트라야
- 2. 차주 모임 : 꾸리아, 구역장 회의 - 23일(토)
- 3. 공소미사 : 용지 - 전 8시, 와룡 - 후 3시, 차주 - 신암, 백자
- 4. 본당미사 참여공소 : 백자, 차주 - 용지
- 5. 성체현양대회 : 20일(수), 치명자산, 차비 - 5천원  
\* 오늘 접수 마감
- 6. 교육관 견립기금 : 김귀영 30만원, 박은순 10만원, 익명 100만원
- 7. 금주 전례 : 해설 - 백강석, 김소양, 독서 - 정수만, 김화자  
봉사 - 성실하신 정녀 Pr.
- 8. 차주 전례 : 해설 - 김송태, 김진숙, 독서 - 김기조, 황신정  
봉사 - 애덕의 모후 Pr.
- 9. 성당 청소 : 1, 2, 3, 4구역, 차주 - 5, 8, 9, 10구역
- 지난주 봉헌금 : 548,700원 □ 교무금 : 370,000원
- 본당발전 : 230,400원

**연지동** 주임신부 533-0044 사무실 533-0898 주임신부 김요안  
F A X 533-0045 수녀원 533-2578 사목회장 고광진

- ◎ 축하 견진 : 견진의 은혜를 받은 140명의 교우여러분에게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 ◎ 감사합니다 : 여성분과, 구역분과, 사목회, L.M, 주일학교  
\* 신자분들의 노력으로 견진성사가 더욱 알차게  
진행되었습니다. 고맙습니다
- 1. 오늘 모임 : 전례분과회, 성모회, 대건회
- 2. 주간 모임 : ① 한재권 요셉회 - 12일(화)  
② 만나회 - 14일(목)
- 3. 군인 예비신자 교리 : 13일(수) 후 7시, 105연대 부대내  
교리담당 - 수녀님 \* 수고하시겠습니다
- 4. 유아 세례 : 16일(토) 후 5시
- 5. 쉬는 교우 방문의 날 : 19일(화)~23일(토)
- 6. 차주 모임 : L.M 꾸리아
- 지난주 봉헌금 : 1,491,910원 □ 교무금 : 632,000원

**요 촌** 주임신부 544-0152 사무실 544-0151 주임신부 김환철  
유치원 546-3788 수녀원 544-0153 사목회장 김치덕

- ◎ 2000년 맞이 100일기도 : 앞으로 76일
- 1. 2000년 대희년 맞이 목주기도 1억단 봉헌 : 10일 현재 총 282,563단  
\* 특별강론 - 순교 복자수녀님, 24일(주일) 10시, 9시 미사+10시 미사
- 2. 2000년 대희년맞이 기념행사 헌금 신청서 : 사무실에서 접수
- 3. 대건 안드레아 신부님 성지순례 : 나바위 - 31일(주일) 9시출발  
첫도착지(전신자) 신청 - 구역장, 기타구역은 사무실  
성인 - 2천원, 초.중.고 학생 - 1천원
- 4. 청년회원 피정 : 23일(토)~24일(주일), 슈류 피정의 집
- 5. 제4차 성체현양대회 : 20일(수), 치명자산 주차장
- 6. 추이 홍보 : 오늘 12시, 신앙 - 김보성(시몬), 신부 - 오화숙(베로니카)
- 7. 모임 : 제대회 - 22일(금) 8. 차주 모임 : 꾸리아
- 9. 감사 헌금 : 상해(김대건 신부 신봉성당), 성지순례단 - 30만원
- 10. 성당 청소 : 구세주의 어머니 □ 지난주 봉헌금 : 1,022,150원  
□ 교무금 : 1,639,000원 □ 2차헌금 : 271,000원

**줄 포** 주임신부 581-0242 사무실 581-0241 주임신부 서정현  
F A X 581-0241 사목회장 정갑동

- ◎ 오늘은 만남 주일로 점심을 함께 합니다
- 1. 금주 모임 : ① 레지오 단원 합동 선서식 - 오늘 미사 중  
② 차기 사목회장 선출 - 오늘 미사 후  
③ 사목회 - 오늘 점심 후, 사제관 회의실
- 2. 금주 구역 가정 방문 : 용반 구역(금요일 후 7시 30분~9시)
- 3. 줄포 외곽 지역 방문 : 금요일 후 2시부터
- 4. 교구성체현양대회 : 20일(수) 전 8시, 본당차량출발
- 5. 선교를 위한 기도를 매일 정성들여 바치고  
금년 말까지 신앙성서를 통독합니다
- 지난주 봉헌금 : 209,000원 □ 교무금 : 110,000원

쉬고 있는 교우들에게 숲정이를 보냅니다.